이재 학맥 인물 이야기를 시작하며

이재는 누구인가?

도암(陶菴) 이재(李縡 : 1680～1746)는 조선 후기 호락논쟁(또는 인물성동이논쟁)에서 호학(湖學, 또는 湖論)에 대응하는 낙학(洛學, 또는 洛論)의 견해를 대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조선 철학사를 잘 모르는 분은 '호락논쟁'이나 '호학', '낙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겠다.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그가 누구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이재 가문의 위상이 어떠한지 우선 상징적인 가족관계를 말하면, 이재는 어머니가 숙종의 정비(正妃)였던 인현왕후의 친언니, 곧 인현왕후가 그의 이모였다. 인현왕후는 흔한 사극이나 드라마에서 숙종을 가운데 두고 장희빈과 대척점에 있던 그분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보통의 집안이 아닌 노론의 핵심 집안임을 알 수 있다.

이재는 본관이 우봉(牛峯)이며 숙종 6년(1680)에 나서 영조 22년(1746)에 돌아갔다. 자는 희경(熙卿), 도암(陶菴)은 호이며, 이것 외에도 한천(寒泉)이라는 호도 썼다. 부친은 이만창(李晩昌)이며, 모친은 여흥(驪興) 민씨(閔氏)로 민유중(閔維重)의 딸이며, 송준길(宋俊吉)의 외손녀이다.

이재는 유년기 숙부인 귀락당(歸樂堂) 이만성(李晩成)에게 배웠다. 문과를 거쳐 좌참찬(左參贊)에 이르렀고, 문정(文正)의 시호를 받았다.

그는 1722년 임인옥사(壬寅獄事) 때 숙부 이만성이 옥사하자 은퇴하고, 인제에 들어가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다가 1725년 영조가 즉위한 뒤 부제학에 복직해 대제학·이조참판을 거쳐 이듬해 대제학(大提學)에 다시 임용되었다. 하지만 1727년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소론 중심의 정국이 되자 문외출송을 당하였으며, 이후 용인의 한천(寒泉)에 거주하면서 많은 학자를 길러냈다. 인물 정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율곡학 프로젝트' 「율곡학 인물」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이 정도로 그치겠다.

다만 그가 낙론 곧 낙학(洛學)의 입장을 계승하였다는 점만 지적한다면 이재가 26세 때에 외숙인 민진원(閔鎭遠, 1664~1736)과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을 방문하였고, 이후 김창협에게서 수학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그의 가문이 김창협과 혼맥으로 연결된 것으로 볼 때, 호학(湖學)과 낙학의 갈림길에서 이재의 학문적 성향이 낙학에 가까운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가 교유했던 인물들도 권상하(權尙夏, 1641~1721), 윤봉구(尹鳳九, 1681~1767) 등 호학의 인물들도 있었지만, 주로 박필주(朴弼周, 1665~1748), 어유봉(魚有鳳, 1672~1744), 유척기(俞拓基, 1691~1767), 김신겸(金信謙, 1693~1738) 등의 김창협·김창흡(金昌翕, 1653~1722) 형제의 문인들과 특히 많이 교류하였기에 자연스레 낙론을 접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그가 한천정사에서의 강학 활동을 통해 저술한 『사서강설(四書講說)』에는 낙학의 입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율곡 학맥과 이재

현상윤(玄相允, 1893~?)은 『조선유학사』에서 이재가 농암(農巖) 김창협의 문인이라고 하였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재의 학맥은 자연히 김창협-송시열(宋時烈, 1607~1689)-김장생(金長生, 1548~1631)-이이로 이어진다.

한편 이병도(李丙燾, 1896~1989)는 『한국유학사』에서 이재의 학문은 뚜렷한 사승(師承)은 없고 조광조와 이이를 사숙(私淑)한 바가 많았다고 하여, 이재가 늘 "정암(靜庵), 율곡은 나의 스승이다."라거나 "나는 율곡께 무한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한 정도였다고만 전한다.

그리고 현대 학자들 가운데도 이재는 위로는 김창협, 아래로는 김원행(金元行, 1702~1772)으로 이어지는 낙론계 정통 학맥의 성리학자로 분류되지만, 이재가 낙학의 종장인 김창협과 직접적인 사승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아무튼 이재의 가학(家學)은 다름이 아닌 이이 성리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까닭은 그의 가문이 노론 계열이고 그의 증조부인 이유겸(李有謙, 1586~1663)은 김장생의 문인이었으며, 조부인 이숙(李翽, 1626~1688)은 송시열의 문인이었기에 자연스레 이이의 학문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재는 전서(全書) 형태로 『율곡집(栗谷集)』을 간행한 인물이었고 이이에 대해서도 "나의 심사(心事)는 율옹(栗翁)과 가장 가깝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나는 율옹(栗翁)께 무한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였다. 또 『도암집』의 「연보」에는 "대개 선생이 어려서 『율곡집』에 정성을 쏟으며 공부했던 것은 또한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말하여, 율곡에 대한 학문적 흠모와 존경이 남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다. 이재는 한천정사(寒泉精舍)에서의 강학에서도 이이의 『성학집요(聖學輯要)』를 학문의 기초로 삼으면서 이이의 학문 방법을 매우 강조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가문의 학문에서 보면 분명 앞서 말한 이이-김장생-증조부 이유겸의 계보와 이이-김장생-송시열-조부 이숙의 계열이 있고, 본인 또한 이이의 학문을 존중하고 따르고 있음을 본다면 이이 학맥임은 분명하다. 다만 김창협과의 학맥 관계는 약간의 이론이 있어 후속 연구를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이재의 문인

정계에서 은퇴한 이후로 이재는 강학 활동을 통한 후진양성에 매진하면서 많은 학자를 배출하였다. 특히 1728년(영조 4) 이인좌의 난 이후 용인 한천동(寒泉洞)[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거주하면서 많은 학자를 길러냈다. 한천정사(寒泉精舍)에서 강학하였는데, 문인들은 그의 학문을 계승하면서 스스로 '천문(泉門)'으로 인식하였다.

이재의 문인은 매우 많은데 비교적 잘 알려진 대표적인 인물을 가나다순으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 김원행(金元行, 1702~1772) : 본관은 안동, 호는 미호(渼湖), 당숙인 김숭겸(金崇謙, 1682~1700)에게 입양되어 종조부 김창협(金昌協)의 손자가 되었다. 평생 벼슬하지 않고 석실서원(石室書院)에서 강학 활동으로 이름난 학자를 많이 배출하였는데, 박윤원(朴胤源, 1734~1799)·김이안(金履安, 1722~1791, 아들)·홍대용(洪大容, 1731~1783)·황윤석(黃胤錫, 1729~1791)·오윤상(吳允常, 1746~1783) 등이 있다. 문집에는 『미호집』이 있다.
- ○ 민우수(閔遇洙, 1694~1756) : 문신이자 학자로 호는 정암(貞庵), 본관은 여흥(驪興), 저서에 『정암집』이 있다. 이재는 그의 외사촌이다.
- ○ 박성원(朴聖源, 1697~1757) : 이재의 고제(高弟)로서 문집 편찬을 주도했고, 한천시(寒泉詩) 논쟁에서 스승을 대신하여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의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비판하였다. 『의례유집(禮疑類輯)』과 『돈효록(敦孝錄)』 등 많은 저술을 남긴 학자이자, 언관(言官)과 강관(講官) 등을 두루 역임한 문신이었다.
- ○ 서형수(徐逈修, 1725~1779) : 문신이며 본관은 달성(達城), 자는 사의(士毅), 호는 직재(直齋)이다. 김원행(金元行)의 문하에서도 수학했다. 정치적 부침(浮沈)이 많았다.
- ○ 송명흠(宋明欽, 1705~1768) : 문신이자 서예가로서 호는 역천(櫟泉), 본관은 은진(恩津)이다.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후손이다. 그는 본연지성에 초점을 맞춰 경을 강조

하였으며, 이러한 그의 사상은 송준길을 뿌리로 하는 가학(家學) 전통에 기반하였다. 저서로는『역천집(櫟泉集)』,『역천소말조진(櫟泉疏末條陳)』등이 있다.

○ 안구(安衢 : 1696~?) :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언통(彦通), 서울 출신. 이재의 문인 이기경(李基敬)·이유(李維)·박성원(朴聖源)과 함께 스승의 강의자료인『천상강설(泉上講說)』을 기록·정리하였다.

○ 양응수(楊應秀, 1700~1767) :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계달(季達), 호는 백수(白水). 순창 출신. 벼슬에 뜻을 버리고 학문에만 진력했다. 저서에『백수문집(白水文集)』이 있다. 이유(李維)가 정리한「종유록(從遊錄)」을 보면 교유한 인사가 매우 많다.

○ 오원(吳瑗, 1700~1740) : 본관은 해주(海州), 서울 출신이며 영조 때의 문신으로 호는 월곡(月谷). 할아버지는 형조판서 오두인(吳斗寅)이고, 아버지는 오진주(吳晉周)이며, 어머니는 예조판서 김창협(金昌協)의 딸이다. 저서에는『월곡집』이 있다.

○ 이기경(李基慶, 1756~1819) : 문신으로 자는 휴길(休吉), 호는 척암(瘠菴), 본관은 전주이며 전주 출신이다. 정치적으로는 남인이었으며 정약용(丁若鏞)과 막역(莫逆)한 사이였으나 천주교를 배격하기 위해『벽위편(闢衛編)』을 지었고, 문집에는『목산고(木山藁)』가 있다.

○ 이유(李維, 1704～1738) : 본관은 우봉(牛峯), 자는 대심(大心)이며 호는 지암(智庵)으로 이재의 종제이다. 양응수의 문집인『백수집』부록에 그의「학고재고례발(學古齋古禮跋)」과「종유록(從遊錄)」이 있다.

○ 임성주(任聖周, 1711~1788) : 본관은 풍천(豐川), 호는 녹문(鹿門)으로 문신이자 철학자·서예가이며 청풍 출신이다. 아우인 임정주(任靖周)·임경주(任敬周)와 함께 배웠다. 여류학자 윤지당(允摯堂)은 그의 누이이다. 기(氣)를 위주로 하는 학문을 완성하여 조선 성리학대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저서에는『녹문집』이 있다.

○ 홍계희(洪啓禧, 1703~1771) : 문신이며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순보(純甫), 호는 담와(澹窩)이다. 유학자로 자처했으나 그보다는 시무에 밝고 경세치용(經世致用)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재의 문인을 자처했으나, 다수 문인에게 배척당하였다. 그 대신 영의정 김상로(金尙魯), 형조판서 윤급(尹汲), 참판 이기경(李基敬) 등과 결탁하였다. 저서로는『삼운성휘(三韻聲彙)』가 있고, 편저는 많은데 그 가운데『해동악장(海東樂章)』이 있다.

이재 학맥의 계보

앞에서는 이재의 직전 문인들만 나열하였다. 물론 이분들이 순수하게 도암(陶菴)의 학문만 수학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개 이름난 선생이 있다고 하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배움을 청하는 선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의 문인인지가 중요한 점이 아니라, 학문의 성격을 보고 판단하는 일이 나을 때도 있다. 때로는 같은 스승에게 배워도 학문과 행적에서 스승의 학문과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동문에게 배척당하기도 하여, 서로 문인이니 아니니 하며 다투기도 하였다. 그러니 학맥의 계보를 따질 때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나열한 이재의 많은 제자의 제자들까지 모두 파악하여 학맥의 전모를 밝히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그렇게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조선 후기 사상 또는 철학의 흐름에서 중요한 맥을 짚는다는 의미에서 그 학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재의 문인 가운데 후대에 영향을 크게 끼친 사람은 김원행이다. 그의 문인에는 또 아들

김이안(金履安, 1722~1791)과 박윤원(朴胤源, 1734~1799)·오윤상(吳允常, 1746~1783)·홍대용(洪大容, 1731~1783)·황윤석(黃胤錫, 1729~1791)·이직보(李直輔, 1738~1811) 등이 있다. 또 이직보의 문인에는 이술원(李述原, 1679~1728)이 있다.

특히 오윤상의 문인에는 오희상(吳熙常, 1763~1833)이 있으며, 오희상의 문인에 유신환(兪莘煥, 1801~1859)있고, 유신환의 문인에는 서응순(徐應淳, 1824~1880)이 있는데, 이 계보인 이재-김원행-오윤상-오희상-유신환-서응순에 이르는 과정은 조선 후기 도학 파 가운데 유신환을 중심으로 하는 봉서학파(鳳棲學派)의 학맥이 그것이다.

또 박윤원의 문인에는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이 있고, 홍직필의 문인에는 조병덕(趙秉悳, 1800~1870)과 임헌회(任憲晦, 1811~1876)가 있고, 임헌회의 문인에는 서정순(徐政淳, 1835~1908)과 전우(田愚, 1841~1922)가 있는데, 여기서 이재-김원행-박윤원-홍직필-임헌회-전우에 이르는 과정은 조선 후기 도학 파 가운데 전우를 중심으로 한 간재학파(艮齋學派)의 학맥이다. 조선 후기의 도학 파에는 화서(華西)·노사(蘆沙)·간재(艮齋)·한주(寒州)·봉서(鳳棲) 등 여러 학파가 있는데, 이재의 문인에게서 갈라져 나온 학파가 적지 않아, 사상사에서 이재의 영향력이 크다.

다룰 인물 또는 주제

시리즈로 작성하는 이 '이재 학맥의 인물 이야기' 열 가지는 학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다 다룰 수 없다. 일차적으로 이재의 직전 제자에게 제한하고, 그 가운데서도 문집이나 남긴 자료가 풍부한 인물을 대상으로 엮어 나가려고 한다.

이글은 이들 인물에 대한 학술적·이론적 흐름에 천착하지 않는다. 이것은 학문적 방법론에 따라 기술해야 하는 매우 지난하고 공력을 들여 학계의 검증을 받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이다. 다만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큰 흐름에서 필요할 때 사상적 배경을 언급하겠다. 대신 독자들의 흥밋거리를 중심으로 문집에 실려 있는 글을 다양한 주제로 뽑아 해석하고 재구성하며, 필자의 해설과 의견을 덧붙이는 차원에서 소개하겠다. 이 또한 후속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기초 자료는 될 수 있다.

다루는 인물 또는 주제는 배경으로서 시작하는 내용과, 인물성동이논쟁, 이재, 김원행, 임성주, 송명흠, 박성원, 양응수, 오원, 민우수이다. 그 외 다른 문인들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 아직 출간된 자료가 풍부하지 않아 발굴하여 정리하려면 필자의 역량을 넘어서서 이 정도의 범위에서 이야기를 엮어 나가겠다.

참고문헌

이병도, 『한국유학사』, 아세아문화사, 1987.
현상윤, 『조선유학사』, 현암사, 1986.
유지웅, 「도암 이재의 성리설 연구」, 『양명학』, 제67호, 한국양명학회논문집, 2022.
이천승, 「도암 이재와 그 문인들의 낙학적 사유」, 『한국철학논집』 제64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20.